

‘05년 3분기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

LG전자 세종대왕상 수상



특허기술상 시상식이 지난 10월 27일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김종갑 특허청장과 송필호 중앙일보 사장, 그리고 수상발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특허청과 중앙일보사가 공동 주관하여 매 분기별로 우수 특허 3건과 디자인 1건을 선정하는데 이번에 영예의 세종대왕상(1위)은 「2단 왕복동식 압축기」를 발명한 LG전자(주)의 신동구 발명자, 충무공상(2위)은 「관절 보호용 생약조성물」로 SK케미컬(주)의 한창균 외 13명, 지식영상(3위)은 「슬라이딩

타입 휴대용 무선 단말기」를 발명한 삼성전자(주)의 이재갑 발명자 외 1명 그리고 디자인 부문의 정약용상은 「드럼세탁기」로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배성환 창작자가 각각 수상하였다.

세종대왕상(1위)을 수상한 발명은 리니어 압축기(Linear Compressor)에 다단압축기술을 적용한 특허로 기존에 100년간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던 압축기의 역사를 바꾸어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 완료해 냉장고에 장착하여 시판하고 있는 우수 기술이다.

충무공상(2위)을 수상한 발명은 동·서양

특허청, 의약발명 특허제도 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

의약발명 연구회 발족

특허청은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는 등 변화하고 있는 국내 제약 산업의 환경을 감안하여, 현행 의약발명 특허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의약발명 연구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회에서는 의약발명 보호범위, 명세서 기재요건 등 주요사안에 대하여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 제도 조사와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의약발명 관련 개발사례·분쟁사례 등에 관한 연구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외국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비교 및

국내 산업계·학계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최적의 의약발명 특허제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회는 특허청 약품화학과장을 회장으로 특허청 심사관 30명 및 변리사, 제약산업 관련협회·업계 관계자 등 청외 회원 60명 등 약 100명의 회원으로 발족되었으며, 의약발명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의학적 원리와 검증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관절염 치료제로써 위장관 보호 효과를 지닌 국내 최초의 천연물 신약으로 전통약물의 우수 발명이다.

지석영상(3위)을 수상한 발명은 휴대 단말기에서 스프링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서버바디를 일정한 힘으로 일정부분 개방하면 그 탄력성으로 자동적으로 서버바디가 완전히 개방되며 한 손으로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하고 편리한 우수 발명이다.

디자인 분야에서 정약용상을 수상한 디자인은 반복되는 Circle & Line의 구축으로 물

방울 형상의 Motive를 이미지화시키고 전면 상하볼륨을 이용한 경사면과 중앙부에 Display Window를 부착하여 컨트롤 부위의 이미지 고급화로 세련된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이다.

특허청 기계금속건설심사국(국장 : 이은우)에 따르면 내년부터 특허기술상의 상금을 세종대왕상(현행 : 250만원→500만원), 충무공상과 정약용상(현행 : 200만원→300만원), 지석영상(현행 : 150만원→200만원)별로 인상하여 우수 발명 및 디자인에 대한 포상의 폭을 높이기로 하였다.

AP-SoC 2005(아태-시스템온칩 2005) 개최



차 세대 반도체 핵심기술인 SoC(System on a Chip)의 현황과 미래를 보여주는 AP-SoC 2005 행사가 올해로 5회째를 맞아 지난 11월 10, 11일 양일간 서울과 대전에서 개최됐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반도체설계자산연구센터(SIPAC) 주관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에서, 첫째 날에는 제6회 반도체 배치설계 공모전 및 SoC Robot War 시상식과 함께 SoC 관련 기술 컨퍼런스가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에서 열렸고, 둘째 날에는 반도체설계 지식재산연구회의 연구논문 발표회가 정부대전청사 중회의실1(2동 207호)에서 열렸다.

첫 날에 있었던 SoC 기술 컨퍼런스에는

SoC Robot War 경기 시연회 등과 중국 CSIP, 대만 ITRI, 일본 STARC 등 외국의 SoC 기관 인사들에게 자국의 IP/SoC에 관한 기술, 시장 및 정책 동향 소개가 있었다.

또한, 둘째 날에는 반도체설계 지식재산연구회에서 반도체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방안과 국제적인 기술동향 등에 대해 논문 발표가 있었다.

SoC란 CPU, 메모리 등 여러 반도체를 하나의 기판에 모아 시스템을 구현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반도체 칩에 하나의 시스템을 구현하는 고밀도 고집적 반도체 기술을 말한다.

이같이 SoC 산업은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대학 지식재산 관리모델 구축 추진

특허청, KAIST와 지식재산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약정 체결

대학의 지식재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특허청은 지식재산분야 선도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과 지난 10월 17일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멀티미디어센터에서 약정식을 갖고, 카이스트의 지식재산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번 약정 체결은 카이스트에 대한 시범 서비스를 통해 대학을 위한 지식재산 관리 모델을 개발, 타 대학에 확산함으로써, 대학 전체의 지식재산역량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정부가 대학과 상호 협력하여 최적의 지원모델을 만드는 새로운 관학협력사례라는 점에서, 신선한 기획으로 받아들여진다.

금번 특허청과 카이스트의 전략적 제휴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이 지향해야할 바에

대한 양 기관장의 평소 지론과 크게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즉, 김종갑 청장은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한 원천특허의 확보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이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에 관심을 가져야함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한 바 있으며,

로버트 러플린 총장 역시, 대학이 학문 및 진리탐구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연구성과를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하고, 상용화를 통한 국부창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을 누차 역설한 바 있어,

이와같은 양 기관장의 일관된 소신과 그 내용에 있어서의 전략적 합치가 금번과 같은 협력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제공 특허청

통합한 새로운 반도체 산업으로, 정부에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선정할 만큼 중요한 분야이다.

AP-SoC 2005는 SoC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기술 및 정보공유의 장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강연과 정보교류, 우수 반도체설계자에 대한 시상 등을 통해 SoC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국내 SoC 산업의 성장과 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